

# 후대는 참사랑교회 미래 100년을 향한 응답이다

창세기 1:28

최세윤 목사님

“하나님, 참사랑교회 50주년을 감사합니다. 100년을 향한 응답을 영세 전에 준비하셨고, 오늘 역사하시고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후대를 살리고야 마는 모델 교회로 하나님이 불드시고 세우시옵소서. 말씀은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 문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각인되어 들어오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찬송하고 예배한 모든 성도, 오늘 찬양한 가족과 후대, 이 시대 살릴 램넌트를 세우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사랑교회 창립 50주년인데, 100년을 향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으로 믿는다. 그 어마어마한 비전에 비해서, 나는 격에 맞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도 말씀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100년을 향한 응답이라는 말 자체가 멋있다. 대단한 비전이고, 가슴 벅찬 일이다. 좀 더 오래 마음을 담고 기도했으면 좋았겠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것으로 믿는다. 첫 번째는 성경에 본 후대, 성경에서 보아야 할 후대다. 두 번째로, 이 후대는 누군가 낳아주어야 하고 양육해 주어야 한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열 달을 태 속에 있으셨다. 과정이 있으셨다. 그분도 생육, 번성, 충만의 과정을 그대로 따르셨다. 이 후대가 백 년을 향한 참사랑의 응답인데, 후대를 위한 보호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언약을 전달하고, 언약 안에서 기르고, 존속시켜 주어야 한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을 통해 부부, 부모를 이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사랑교회의 후대에 대한 비전을 두고, 태영아부와 후대 사역을 위한 약간의 내용을 담겠다.

## 1. 후대 (창1:27-28)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으며, 하나님은 자기 말씀을 자기 능력으로 이루실 것이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대로 진행하신다. 이 의도를 거스르면 하나님은 궤해 버리실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 통치를 위해서 반드시 말씀대로, 후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방향으로 이루어가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방향이 RUTC다. 우리가 하면 좋겠다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애초부터 가지셨던 마음이며, 하나님이 처음으로 발설하신 언약이다.

(1) 그래서 후대, 그 안의 태영아는, 하나님의 창조 의지의 출발이다. 하나님의 시작이다. 참사랑교회는 태영아부를 맡은 장로님이 있다는 것이다. 참사랑교회 태영아부는 배경이 있구나 싶었다. 장로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 후대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고 하나님의 사역의 시발점이라고, 핵심을 짚어주셨다. 흠 한 줌을 가지고 혼을 담으면 작품이 된다. 도자기 하나가 수십 억 짜리 작품이 되기도 한다. 하나님은 흠 한 줌으로 인간을 만드셨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창조된 것이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발현되고 생성되는가?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그들의 결혼 임신 출산을 통해서, 후대 생육 번성 충만을 통해서다. 이것이 창시자의 설계요, 의도다. 부부가 찬송하고, 아이가 옆에서 노는 모습은, 창세기 1:27-28에서 하나님이 그리셨던 그림이라는 말이다. 엄마 아빠가 노래할 때 아이가 그 언약을 듣는 것이다. 엄마 아빠가 언약을 누리면서 살 때 아이는 삶을 그릇으로 하여 그 속에서 자라는 것이다. 그 말씀이 오늘 찬양한 가정을 통해서 재현된 것이다.

(2) 이 후대는, 읽은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정복의 능력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는다. 강패처럼 때려 부수지 않는다. 성도의 후대를 통해서 정복하고 다스리시겠다는 놀라운 비밀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려면, 하나님의 이 속내를 읽어야 하고, 태영아부 양육도 해야 하고, 미래 학교도 세워야 하는 것이다. 램넌트들을 위한 좋은 그릇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거기에서 올 인하는 집중, 헌신이 나올 수 있다. 하나님

은 반드시 창세기 1:28, 생육 번성 충만으로 정복하고 다스리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 방식으로 일하신다. 천사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은 이를 수 없다. 생육 번성 충만의 자리에 와서 일을 하고 부모를 돕고 램넌트를 도와야 하나님의 뜻을 이를 수 있다.

(3) 그래서 후대, 태영아는 근원적인 것이다. 기초에 깔려야 한다. 집을 지을 때 지붕부터 짓는 집이 어디 있겠는가. 하나님은 더딘 것 같지만, 열 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게 하셨다. 동물은 몇 시간 만에 걸어나다니기도 한다. 그러나 인간은 태어나서 바로 일어서지 못한다. 예수님도 태어나자마자 바로 일어서지 않으셨다. 석기는 일어섰다.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온 것이다. (웃음) 기어야 할 때 기어야 한다. 근원이다. 근원적 비전의 시작이다. 그래서 태영아는 모든 역사의 근원이고 시작이다.

(4) 그렇다면, 기만히 있지 못하는 작자가 있지 않았는가? 마귀가 공격을 할 때 대상이 되는 것, 마귀가 겨누어서 쏠 때의 탄착점이 바로 이 후대인 것이다. 그렇지 않을 리가 없는 것이다. 마귀는 창세기 3장으로 역사한다. 모조리 쓸어버린다. 창세기 3장을 이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인간의 존재의 본질이 거기에서 나왔다. 창세기 3장으로 인류를 지배하고 태영아에 역사한다. 창세기 3장은 무엇인가? 인간인 내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다. 생명에서 끊어진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그 이면에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들어있다. 그래서 인간은 전부 자기 중심이다. 나 중심이다. 별 것을 다 해도 나 중심이다.

(5) 그렇다면 이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방어용 무장과 공격할 수 있는 공격 무기가 당연히 있어야 한다. 그것이 부부요 부모다. 부부 세미나로는 이것을 가르칠 수 없다. 존 그레이가 쓴 '화성남자, 금성여자' 같은 책 내용을 가지고 부부를 가르칠 수 없다. 근원적으로 안 맞다. 마귀의 공격을 방어하고 대적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갖춰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보호장치가 부부, 부모인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으로 넘어가려고 한다. 부부, 부모가 복음 안에 세워져 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이것은 있어야 한다. 필연적인 것이다. 마귀가 공격하고 있는 이상, 부부, 부모는 복음 안에서 의미를 찾아야만 한다. 세상에서는 부부 세미나를 아무리 해도 성취되지 않는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복음을 증거하는데 부부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게 진짜다. 그래서 인생은 마귀와의 한 판 싸움이다. 일평생으로 해야 한다. 대를 이어서 싸워야 할 싸움이다. 불구대천의 원수,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꺾어야 한다. 이것을 언약으로 넘겨야 한다.

## 2. 부부, 부모 (에베소서 6:10)

(1) '끝으로'라고 했다. 이것이 아니면 완성이 안 된다. 마무리가 안 된다. 시작은 크게 했는데, 후대가 없으면 끝이 안 된다. 6장과 5장을 연결해서 보아야 한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지만, 후대의 관점에서 연결해서 보아야 한다. 백 년의 응답을 두고 주시는 비전은 강단에서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다 나왔을 것이다. 이 흐름이 암송할 정도로 각인되어 있어야 한다. 나는 그 중에서 작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보호장치가 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마무리하시는데, 이게 없으면 끝이 안 된다. 완성이 안 된다. 마무리가 안 된다. 반드시 이게 있어야 하는 것이다. '끝으로' 무엇인가? 마귀의 계획을 대적하라는 것이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했다. 신앙의 본질은 수동태다. 강하라고 하지 않았다. '강하여지라'고 했다. 이렇게 언약을 주신 것이다.

(2) 그러면서 11절을 보라. '마귀의 간계'라고 했다. 계략, 간교한 속임수, 책략이다. 우리는 마귀의 이 간계를 간파하지도 못한다. 알 수도 없다. 대적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은혜를 입어야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은혜를 받아서 비로소 아는 것이다. 왜 우리는 마귀의 계략을 눈치챌 수 없는가? 그게 우리에게 더 낫기 때문이다. 육에 속한 우리에게는 그게 딱 맞다. 너무 좋다. 그래서 모른다. 아예 모른다. 마귀의 간계는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다. 오히려 속게 된다. 단순한 술책이 아니다. 거짓말 안 하면 천국 가는가? 마귀에게 안 속게 되는가? 그런 말이 아니다. 마귀의 계략은 그리스

도를 빼 버리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없이 자기들끼리 하는 것이다. 아이를 생육, 번성, 충만하는 것은 하나님의 처음 언약인데, 그리스도가 없이 아이를 낳았다, 잘 키웠다, 성공했다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에 걸려든 것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시기를 축복한다. 은혜 없이는 안 된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그것을 안 믿으니까 바람도 불게 하고 파도도 치게 하는 것이다. 그 만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가르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빼고 해석하게 하려는 것이 마귀의 간계다. 윤리적으로 맞는 말이 영적으로는 거짓말이 된다. '사랑해'를 '사랑해'로 풀면 속는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외에는 사랑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런데 불교가, 뉴 에이지가, 사탄교가 사랑을 말한다. '사랑해'라는 말을 마귀도 잘 쓴다. 마귀의 계략은 그리스도를 빼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보아야 한다. 하늘을 봐도 그리스도로 보아야 한다. 뭐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 안 그러면 사전적으로는 바르게 알아 놓고 다 속아 버린다. 서로 사랑하면 구원받는가? 아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서로 사랑이다. 이때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서로 사랑이 나온다. 이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하늘에서 와서 내게 와서 보여서 작용하고 나타날 때 예배가 된다. 하늘에서 받은 게 없는데 멋있게 만들어서 작품을 만들어드리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은 거절하셨다. 복음을 모르면 사랑 실컷 하고 지옥 간다. 부부가 해로하고 지옥 간다. 착하게 살고 지옥 간다. 예수만 그리스도시다.

(3) 12절,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옷을 입으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만든 자기 옷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옷을 입어야 한다.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래야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원수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옷차림은 하나님의 옷을 입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태영아 부부, 부모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 보혈이 어떻게 옷이 되는가. 그 보혈이 어떻게 나의 죄를 회개 하는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옷 입는 것이다. 그것이 믿어지게 된다.

(4) 그리고 10절을 다시 보자. 이 말씀의 대상자가 나온다. "너희가." 그러면 '너희'가 누구인가? 앞에 나왔다. 5장으로 가서 보자. 5장 22절부터 보라. 첫째는 아내들이다. 둘째는 남편들이다. 다음은 자녀, 부모, 중, 상전이 나오는데, 우리는 아내와 남편만 보자.

① 22절부터 24절을 보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됄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됄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다. 맞는가? 겁도 없이 아멘을 했는데, (웃음) 복종이 안 될 것이다. 안 되지 않나. 거짓말 하는 사람은 된다고 하겠지만 어렵다. 그래서 '복종하라'고 하지 않았다.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믿어주시지 않는다. '복종하라'고 하지 않고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주를 모르고는 할 수 없는 복종이 있다. 주를 알면 되는 복종이 있다. 유교에서 배운, 기형적인 가부장적인 복종이 아니다. 아내들이 복종하라고 했으면 조선 사람들이 제일 믿음이 좋았을 것이다. '복종하기를'이라고 해놓고 진짜 비밀을 터트린다. '주께 하듯.' 그러니까 복종을 가르치는 게 아니다. 주님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 주님의 말씀이 나올 때 아멘 해야 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주의 말씀이 나오면 그 복음을 체험해야 한다. 그러면 아내가, '주께 하듯'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남편에게 할 것이 넘치지 보여지기 시작한다. 신사임당처럼 고분고분한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순종이 아니다. 우리는 순종한 적이 없고, 한 사람도 순종한 자가 없다. 예수만이 순종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를 알라는 것이다. 그러면, 정말 멋진 복음을 누리는 아내가 나온다. 100년을 향하는 참사랑교회 응답에서 이런 아내가 되기를 축복한다. 23절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됄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됄과 같다고 했다. 이것과 저것은 다르지 않다. 동일한 것이다. 그러므로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됄이

무엇인지 연구하지 마라. 논문 쓰지 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는 것이 무엇인지 보라. 그게 복음이다. 복음을 연구하면 신기하게 부부가 나오는 것이다. '하듯 하라'고 했다. 이것을 종속접속사라고 한다. 이것이 복음이다. 객치는 스스로 갈 수 없다. 동력이 없다. 가만히 있어야 한다. 스스로 가려고 하면 종교다. 행위로 살려고 하면 종교다. 나는 못 가, 나는 죽었어, 나는 동력이 없어 하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면 기관차가 와서 종속접속을 시켜 준다. "너는 내게 속해야 한다." 그러면, 그가 오셔서 걸어 버리면, 나는 1mm도 갈 수 없는데, 그를 통해서 천국까지 간다. 부활까지 간다. 능치 못함이 없는 언약까지 간다. 왜냐? 그 기관차의 동력 때문이다. 땅에서의 부부를 하늘의 복음에 접속시키면, 복음이 부부를 이끌고, 복음이 부부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의 부부를 들어야 한다. 교회 밖 문화센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부부, 부모, 램넌트라는 메시지를 나누어야 한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뜻인지 모른다. 복음 안에서만 부부, 부모의 목적이 나온다. 이 그리스도를 모르면 아내, 남편이라는 말 자체도 전부 틀리게 된다. 모르고 그냥 쓰는 것에 불과하다. 철저히 우리는 무능자다. 죽은 자다. 할 수 없는 자다. 무동력자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하듯, 그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걱정은 하지 마라. 복음을 들어라. 강단의 말씀을 받아라. 그것이 여러분의 부부 됄, 부모 됄과 후대에게까지 이를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렇게까지 받아라. 말씀을 그렇게까지 받아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둔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겔36:26)." 하나님은 새 영을 주기를 원하신다. 어디에인가? 너희 속에. 우리는 이것을 흔히 '중심'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마음 깊은 곳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말씀의 원래 뜻은, '가장 가까운 곳'이다. 속에다 두신다는 말은, 여러분 마음과 생각의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첫 번째에 떠오른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이 나타나게 해 주신다는 것이다. 그것이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는 말씀의 뜻이다. 그러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믿어지고 복종하게 된다. 순종을 복으로 알게 된다. 그 복이 임하기를 바란다. 그보다 더 큰 복이 없다. 이 은혜를 못 받으면 순종이 안 된다. 복종이 안 된다. 아내가 입어야 할 영적 옷, 전신갑주다. 하나님이 아내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야 한다. 안 그러면 못 한다. 마귀가 가만있지 않는다. 옮겨간다. 한국 산모의 20%가 산후우울증을 겪는다. 끔찍한 사건이 자주 나온다. 시끄럽다고, 엄마가 자기 아이를 죽인다. 그런 분이 계시면 기도하고 주를 의지하라. 그리고 병원 가서 약을 받아라. 그러면 금방 낫는다. 그런데 그것을 두면 끔찍해진다. 아내가 입어야 할 영적인 옷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만이 아니다. 그러면 가부장제가 된다.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땅에서 복종하는 복음으로 들려야 한다. 그래서 아내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복종해야 할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갈 수 있는 것을 끊임없이 주시니까, 그게 모든 것이다. 만물, 범사, 모든 것. 그것을 통해서 회노애락을 느낀다. 그것을 통해서 결국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간다.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다. 와도 좋다. 파도가 쳐도 된다. 물 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오시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다행이다. 그것이 복음이다.

② 25절에서 30절까지는 '남편들이'라고 했다. 핵심 구절이 나왔다.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실 같이 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두 번째 대상인 남편이다. 남편이 입어야 할 영적 갑옷이, '아내를 사랑해라'가 아니다. 남편 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남편 되신 그리스도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아는 것은 쉽다. 쉽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수만 있다면 너무 쉽다. 내 마음대로 안 되게 만들어 놓았다. 예수만 그리스도시기 때문이다. 남자들이 야기가 긴데, 문제가 많은 모양이다. (웃음) 예배시간에 남자가 많은가, 여자가 많은가?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이 남자가 많을까, 여자가

많을까? 모르겠지만, 대략 추측컨대, 확률적으로 본다면,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은 여자가 많을 것이다. 그러면 다시 태어난다면 남자로 태어나고 싶은가, 여자로 태어나고 싶은가? 여자로 태어난 것은 복 받은 것이다. 여자가 쉽게 믿는데 남자는 잘 안 믿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큰일이다. 창세기 3장의 죄라고 말한다. 그 죄가 씨가 되어서 몸 밖으로 증세를 나타낼 때는 남자와 여자가 같지 않다. 중범죄, 큰 사건사고, 큰 문제는 남자들에게서 나왔다. 남자들은 회한하다. 여자화장실에 몰카 찍는 것은 다 남자다. 남자화장실에 여자가 몰카 담아놓은 이야기를 본 적이 있다. 뭐 하러 그런 것을 하겠나. 그런데 남자들은 한다. (웃음) 남자들은 그렇게 되어 있다. 남자로 태어나서 여기 앉아있는 것은 기적이다. 생물학자가 하는 말을 들었는데, 남자로 태어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불행하다고 했다. 항체 형성 속도가 더디다고 했다. 병은 빨리 걸리고 낫는 것은 늦다는 것이다. 수명도 여자가 길다. 남자는 일찍 죽어버린다. 남자로 태어난 게 얼마나 불리한가.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어렵다. 여자는 나이 들면 늙어가지만 남자는 나이 들면 불쌍해진다. 나이들면 여자 뒤에 남자가 끌려다닌다. 젊었을 때는 남자들이 항상 앞에 간다. 책임지고 희생하고 열심히 산다. 나이가 들면 남자처럼 불쌍한 게 없다. 우리 동네에도 많다. 나도 늙으면 어떻게 될지 걱정이다. (웃음) 남자가 늙으면 여성화되어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을 어떻게 하나. 여자는 늙을 것도 없다. 결혼해서 몇 주만 지나도 없어진다. 곧 가정을 주도한다. 그래야 맞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그것 안 놓으려고 버티면 늙어보라. 고생만 남는다. 일찌감치 여자에게 주도권을 넘기는 게 낫다. 그게 지혜롭다. 루터가 42세에 26세 카타리나와 결혼했다. 수녀원에서 탈출한 수녀와 결혼했다. 루터가 그리고 나서 말했다. “진짜 인생은 결혼해 봐야 안다.” 처음에는 루터가 편지를 ‘아내여’ 하고 썼다. 나중에는 ‘나의 주인이여’ 하고 썼다. 16세 연하인데 루터가 꿈쩍도 못했다. 나이가 어린데 얼마나 치밀하고 바른지, 루터가 할 말이 없다. “나의 주인이여,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실화다. (웃음) 남자는 어렵다. 왜 이 말을 하나? 자기가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여자도 남자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도와주어야 한다. 여자는 준 것 없이 은혜를 받았다. 여자는 잘 믿어진다.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백 배나 기도해야 한다. 여자로 살기 힘들지 모른다. 그러나 남편을 주일에 예배 참석시키면, 어떻게든 앞에 앉아서 은혜 받게 만들어라. 안 그래도 말씀이 안 들리는 게 남자인데 애까지 없어놓고 있으니 신앙이 언제 자라나. 여자는 애 업고도 말씀이 받아지는데, 남자는 애 없어도 말씀이 안 들리는데 어떻게 하나. (웃음) 벼락을 맞아 죽는 통계를 보면 82%가 남자다. 왜 그런가? 나대니까 맞은 거지. (웃음) 이유도 없다. 남자는 불행한 것이다. 이 사정을 이해해 주어야 한다. 남자들이 얼마나 유치한가. 이해해 주어야 한다. 리모콘 가지고 싸우지 말고, 그래도 남자다. 그 남자가 진짜 남자이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는 남자가 아니다. 그냥 덩어리다. (웃음) 이 남자가 진짜 남자 그리스도를 알면, 남자가 부러워하는 남자가 된다. 남자의 새 마음이 들어오면, 아, 남편이란 이런 것이구나, 내가 정말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듯이. 종속접속사다. “나같이 모자란, 고멜같은 나를 찾아와주시고, 속량해서 사 주신 호세아 같은 남편 되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그런 남편이 되어 아내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거기까지 가야 하는 것이다.

③ 결혼을 했다면, 결혼은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데 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바로 시키신 것이 무엇인가? 신랑 아담, 신부 하와 입장시켜서 둘이 결혼시킨 것이다. 왜냐, 생육 번성 충만이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이었으니까. 그 결혼은 복음을 깨닫기 위해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것이다. 창조하시고 첫 번째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 주신 것이 결혼이다. 결혼할 때는 물론이요, 결혼식 가서 신랑신부 볼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이다. 결혼보다 복음을 더 정확하게 드러내는 게 없다. 신랑을 보는 순간, 하늘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하고 믿고 그 마음으로 축복해야 한다. 신부를 보는 순간, 그리스도

께서 신랑 되어서 나 같은 여자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해서, 그 사랑을 알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 복음을 알면 결혼식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 결혼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야기할 게 없어야 한다. 복음을 설명해주는 가장 가까운 것이 결혼이다. 결혼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어야 한다. 이것을 못 깨닫고 있지 않나? 인간은 창세기 3장 존재인데, 내가 하나님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결혼이 신과 신이 만나는 것이 되어 버린다. 신들의 전쟁이 곧 일어난다. 신은 절대 자기 영역을 빼앗기지 않는다. 전부나 중심이다. 양보하고 배려하는가? 결혼해 보라. 며칠 못 간다. 창세기 3장 출신 신들께서 자기 주권이 있는데 그렇게 할 리가 없다. 신들의 전쟁이 벌어지고 나면 자기 주권을 찾으려고 엄청 싸운다. 안 싸운 사람 있는가? 당연한 것이다. 안 싸운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것이다. 창세기 3장 존재는 싸우는 게 맞다. 싸우다 보면 ‘이러려고 만난 게 아닌데’ 하면서 꼬이게 된다. 그러다 어느 날 알게 된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알게 된다. ‘예수님만 그리스도구나, 하나님만이 창조주 사구나’ 하고 알게 된다. 그날부터 정신이 드는 것이다. 그 이후에는 갈등이 없나? 있어도 괜찮다. 갈등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더 알도록 촉진시켜 주는 것이요, 나는 그 은혜에서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가. 웃어도 좋다. 울어도 좋다. ‘이런 남자를 만나려고 내가’ 아니다. 괜찮다. 결혼했으면, 그리스도를 알아라. 그래서 에베소서 5:31을 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도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누구 생각이 나야 하는가? 예수가 먼저 생각나야 하고, 그 안에서 아내가, 남편이 생각나야 한다. 아버지를 떠나 아내를 찾으러 오신, 장가들러 오신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그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 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32절을 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까지 그리스도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다. 교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를 표시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것과 동일하게 남편과 아내를 알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주는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것이다.

④ 조금 망측한 이야기를 하겠다. 새겨 들어야 한다. 이혼을 하면 되는가? 하시려고 그러나. 대답이 없다. 되나? 만약 이 자리에 이혼하신 분이 계신다면 어떻게 되겠나? 안 된다 하는 답을 듣는 순간 얼마나 상처가 되겠나? 나 같은 자는 교회에 나와서 환영받지 못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게 되면 어떻게 되겠나? 결혼하고 이혼하면 안 되겠다. 가정이 찢어지면 얼마나 아프겠나. 끝까지 완성해야 한다. 나도 안 하겠다. (웃음) 다 맞아서 아니고, 언약 안에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했다면, 왜냐? 우리 교회 안에는 이혼한 분들도 있으니까. 이 현실을 부정하면 안 된다. 인정해야 한다.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가 더 중요한 것이다. 말씀이 무엇인가를 나누는 것이다.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으면 일단 목사로서 이야기한다. 그래도 살아야지. 그런데 두 번째 마음이 든다. 빨리 이혼하라고 한다. 내 딸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같이 살라고 할 자신이 없다. 끔찍하고 어려운 사정들이 부부 사이에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저 부부를 같이 살라고 할 수 있겠나. 내가 괜히 들었다 싶을 정도다. 그런 현실들이 더러 있다. 참 마음이 아프다.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일이 부부 사이에 있다. 그래서 상처를 받고 이혼한 분들이 있다. 이들이 더 죄인인가? 결혼은 했지만 정작 그리스도와는 이혼한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은가? 영적으로 보라. 그리스도와는 이혼한 상태로 불행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비록 땅에서의 결혼에서는 이혼이라는 상처를 입었지만,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혼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에 더 접근되는 그것만큼 위로가 더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혼했으면,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시기 바란다. 그 상처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지 마라. 결혼도 이혼도 경험에 불과하다. 결론,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망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

도를 알았다면 성공한 것이다. 잘 됐는데 그리스도를 몰랐다면 망한 것이다. 상처도 결혼도 과정이 아니다. 행복하면 그리스도께 가라. 안 가면 그게 저주다. 불행하면, 그리스도께 가라. 그러면 그 불행이 디딤돌이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이혼한 분들은 당당하라. 죄인이 아니다. 괜찮다. 그 경험을 통하여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다. 부부 사이에 어려움이 없고 자식 잘 되고 아쉬움이 없는 사람이 기도할 것도 없어서 그냥 주여 고맙습니다 한 마디 하고 가는 것보다는, 이혼 때문에 애통한 마음으로 주된 심령으로 간절히 주를 찾는 심령이 더 복을 받는 것 아닌가? 그것이 마귀의 계략에 속지 않는 것이다. 마귀가 하는 마귀의 것이 무엇인가? 틀린 것, 거짓, 재앙, 사건을 재앙으로 풀면 속는다. 우리는 재앙을 그리스도로 풀어야 한다. 재앙이라는 것은 불신자도 다 안다. 그 자체로 마귀가 역사한다? 역사하라지 뭐. 하면 어떤가. 예수만 그리스도인데, 바람 좀 불면 어떤가.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피해가려고 하고 면하려고 하고 없애려고 한다. 그게 복음인가? 아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세상을 관통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복음이다. 성경 66권에서 그리스도를 빼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다. 그러니까 사건을 사건 자체로 풀면 안 된다.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풀면 안 된다. 그리스도를 빼면 안 된다. 성경 66권에서 그리스도를, 만물에서 그리스도를 보아야 한다. 만사 경험에서 그리스도를 보아야 한다.

이것을 아주 가까이에 두어야 한다. '속에 두고'라고 했다. 운동을 해 보니까, 진짜 좋은 운동은 다 가까이에 있더라. 내 집 가는 계단이 다 운동이 되더라. 18층까지 걸어서 올라가는 것이 운동이더라. 돈이 안 된다. '가까운 데 있구나.' 몸에 좋은 약초는 산삼도 있지만, 진짜 필요한 풀은 근처에 다 있더라. 인간이 지옥에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학위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모범이 안 되어서? 착하게 안 살아서? 흔한 것이다. 동네마다 교회가 있고 전도자가 있는데, 가까이에 있는데, 전도지 흔한데, 예수리는 이름이 흔한데,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데, 그 예수를 안 믿었다고 지옥에 갈 줄은 정말 몰랐을 것이다. 가까이 있는데 몰랐던 것이다. 그게 느껴지더라. 인간은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복음 모르면 모든 것을 속는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알아가시기를 축복한다.

### 3. 비전

참사랑교회의 후대 비전이 이러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내가 말하기로는 격이 안 맞다. 하지만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 여러분도 아실 것이다.

(1) 태영아에서부터 청년까지, 이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마음과 생각과 삶으로 알아가시기를 바란다. 여기에 결혼과 미래, 후대의 복의 뿌리가 있는 줄로 믿는 것이다.

(2) 두 번째, 어린이 교육인데, 이것은 여러분이 이미 하고 있는 것이다. 지속해서 확장되기를 바란다. 교육에 대한 비전은 미래를 크게 뒤라.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해 주셔야 한다. 그런 리더로서의 문을 열어야 한다. 교육을 점점 확장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학교 교육으로 해서, 램넛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기반으로 확장되어가면 좋겠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여러분 교회는 할 수 있어야 한다.

(3) 어린이 예배다. 이 부분도 할 말은 많지만 간단히 하겠다. 어린이 예배를 혁신해야 하고, 쉽게 말하면 예배당을 살려 주셔야 한다. 매주 교회에서 드러지는, 집에서 드러지는 어린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어린이답게 활기치게 역동적이면서도 영적이도록, 교사들은 집중하고 기도해야 한다.

① 말씀이다. 강단에서 말씀이 하나 떨어지면, 학원복음화 메시지에서 근간을 찾되,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해서, 어느 것이든지 이 주제로 귀결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더 분명하게 되도록 해야 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 같은데 좀 더 추려내어야 한다. 좀 더 흔들어야 한다. 그래서 잡도록 만들어주어야 한다. 타겟은 예수만이 그

리스도인데, 이것이 좀 더 분명해지도록 해 주어야 한다. 우리는 원색적 복음을 받아 왔는데, 이것이 의외로 산만해질 가능성이 있다. 많은 목표, 많은 지점을 찾다 보면, 성경을 여유롭게 전략적으로 풀면, 단순명료한 이원색 복음을 간파하고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사들이 치열하게 포럼해야 한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예배 속에서 재미있게 참여해야 할 것, 조금도 지루하지 않고 활기차고 마음에 쏙쏙 박힐 정도의 예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로 심겨져야 한다. 어릴 때, 태영아유치초등에서.

② 이것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게 노래다. 이것은 실험적인 것인데, 아이들이 부를 수 있는 쉬운 노래를 한다. 아이들에게 익숙한 노래를 개사해서, 오늘 메시지를 가지고 개사해서, 바로 부르게 만든다. 배울 것도 없다. 바로 부른다. 그날 말씀을 바로 심어서 표현해서 노래를 부른다.

③ 그래서 복음 놀이로 가는 것이다. 말씀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살아가도록, 설교식으로 딱딱하게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이들 예배가 정말 활기차고 역동적이 되도록 혁신해야 한다. 말씀이 들어가기에 너무 좋은 시기의 아이들에게, 예배 하나하나가 소중한 기회인데, 까딱 잘못하면 예배가 지루하다 뻘하다 재미없다 하게 되면 어렵게 된다. 아주 쉬운 놀이, 재미있는 놀이로 시청각 자료를 매주 만들어서, 아주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해야 한다. 그 놀이를 집에 가서 하면서 계속 말씀이 나오도록 만들어야 한다.

(4) 태영아 사역자들이다. 참사랑교회 안에 이런 사역자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면서 사례를 든다. 태영아사역자, 교사, 양육자가 참 중요하다. 어떤 나이 많은 여자 장로님이, 교회 안에서 임신부나 어린 아이가 있는 엄마들을 6, 7 가정 정도 뽑았다. 그래서 1년 동안 자기 집으로 초청했다. 교회에서 인정하는 사역자가 허락받고 하는 일이다. 공개적으로 모으지는 않는다. 조용히 뽑아서, 자기 집에서 이들을 초청해서, 자기가 음식을 만들어서 먹여주면서, 강단 메시지를 같이 듣고 포럼하고, 본부 메시지를 같이 듣고 포럼하고, 훈련 메시지의 맥을 짚어주고, 기초 메시지를 해 줬다. 반복해서 이것을 같이 듣고 짚어주고 정리해주고 확인해주고 같이 포럼한 것이다. 1년 동안 그 내용으로 돌보아 주고 1년 후에는 졸업시켰다. 첫 아기를 낳은 엄마는 아이를 어떻게 목욕시켜야 하는지도 모른다. 이런 것을 케어해 주었다. 신앙에서 삶에서 아내로서의 삶,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친정 엄마처럼 도와주었다. 안 좋아하는 엄마가 없다. 남이 해 주는 밥을 먹는 행복을 누리니까. 이 장로님의 사역이다. 소문 없이, 끊임없이 그렇게 한다. 나는 정말 감동했다. 이렇게 늙어야 한다. 소리없이 교회를 도우니까 교회 안의 젊은 엄마들이 짝 안정된다. 부교역자는 부교역자로서의 임무와 사명이 있지만, 정작 교회 안에 필요한 것은 이런 평신도 사역자들이다. 풀뿌리 사역자들이다. 이런 사역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란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분들이 나와야 한다. 그래서 이 젊은 세대를 도와주어야 한다. 멋있게 늙어야 한다. 미천한 자를 불러주셔서 감사하다. 격에 맞지 않지만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나누고 싶은 내용을 전달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을 믿는다.

“하나님,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속에 언약을 주시고, 그 마음을 주셔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태영아부터 청년까지, 이 언약을 누리는 참사랑교회의 후대가 살아나게 하시고, 후대 백 년을 향한 참사랑의 응답이 보여지게 해 주시고, 참사랑이 후대 회복의 그릇, 시스템이 갖춰져 가는 모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주년의 응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사랑교회 백 년을 위한 응답이 말씀 속에서 환히 보여지도록, 안목이 열리는 은혜를 참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일일이 찾아주시고, 말씀주시고, 백 년을 향한 참사랑의 응답을 보게 하심이, 참여한 모든 성도, 부모, 부부, 조부모, 그리고 이들의 보호와 양육을 통해서 자라나는 모든 램넛들 위에, 이 일을 위해 쓰임 받는 모든 사역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